

지역 매 아리

김제시 농업정책과, 현장행정 운영

김제시 농업정책과는 20일 현장감을 키우고 사무실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으로 업무추진을 할 수 있는 동력마련을 위해 현안 사업장인 하량영농조합법인과 공덕농협 농산물가공센터를 방문했다. 이번 견학은 필수인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사무실 근무로 현장감이 떨어지기 쉬운 업무에 대한 시야를 넓히고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현장을 둘러보며 그동안 추진해왔던 사업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눈과 귀로 직접 느끼고 배우는 유익한 시간을 갖기 위해 추진됐다.

만경에 위치한 하량영농조합법인에서는 첨단 스마트팜 유리온실과 ICT융복합 시스템, 양액시설을 둘러보며 스마트팜 추진사항과 운영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고, 공덕농협 농산물 가공센터에서는 쌀·보리떡과 군고구마 농산물 가공시설을 둘러보고 6차산업의 현황 및 향후계획,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시설견학을 마친 후에는 앞으로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와 스마트 농업과 6차산업의 발전에 대하여 각자의 의견을 나누는 토론타임으로 마무리 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의원 "내년 의정비 동결"

김제시의원들의 월정수당이 2019년에는 동결되고 2020~2022년까지는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해 인상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김제시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김영달)는 지난 19일 김제시청 2층 상황실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어려운 지역경제 현실과 시민정서 등을 감안해 2019년에는 월정수당을 현재와 같이 동결하고 2020~2022년에 인상하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19일 의정비심의위원회에 따르면 10명의 위원들이 심도 있는 토론으로 김제시 주민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물가상승률 및 지방의회 의정 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이에 앞서 김제시의회에서는 운주현 의장을 비롯한 14명의 의원들이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정비 결정과 관련하여 전국, 도내 자치단체의 진행 및 결정 상황을 파악한 후 "김제시의회의원들도 의정비 인상 최소화에 동참하고 열심히 일하는 의회상을 구현하여 시민들에게 다가서는 김제시 의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의견을 모은 후 의정비 심의 위원장에게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2019년도 받게 될 김제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2018년도와 동일하게 매월 287만원으로 연간 3,445만원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 '주민과의 약속 로드맵' 가동

## 박성일 완주군수, 민선7기 공약 113개 사업 확정

민선7기 완주군수 공약사업이 9대 분야 113개 사업으로 최종 확정됐다. 완주군은 최근 주민과 전문가로 구성된 '민선7기 완주군 공약이행평가위원회(위원장 이호연)'를 열고, 민선7기 군수공약을 113개 사업으로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확정된 113개 세부공약사업은 군정 목표 '소득과 삶의 질 높은 15만 완주 시 대도약'과 군정 3대 비전 '모두가 바라는 일자리(모바일 완주), 모두가 행복한 삶의 질(르네상스 완주), 잘사는 농업농촌농민존중(농토피아 완주)' 및 군정 5대 핵심정책 '오픈복지, 미래세대 육성, 으뜸 안전도시, 청년 완주, 평화와 자치분권' 등 총 9대

분야로 분류해 공약실천계획의 완성도를 더욱 높였다.

주요 공약사업을 보면 15만 자족도시 기반 구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삼봉웰빙시티·복합행정타운 조성 ▲행복주택사업(삼례) ▲공공기관 조 기착공 입주(완주교육지원청 등) ▲도시재생 뉴딜사업(봉동 등), ▲테크노밸리 2단계 및 중소기업 농공단지 완공 ▲완주형 사회적경제 '소셜굿즈' 등이 포함됐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완주방문의 해 추진 ▲완주 낭만가도 조성 ▲아파트 르네상스 2.0 ▲완주정신부흥 프로젝트 ▲동물보호 복지기반 마련이, 농토피아 완주 실

현을 위해 ▲농식품산업 메카 조성(완주푸드플랜 수립 등) ▲전국 최초 농업참여예산제 시범시행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이 확정됐다.

오픈복지와 미래세대 육성을 위해서는 ▲완주보건소 신축 및 차매안심센터 건립 ▲연령별 맞춤형 으뜸살버정책(은퇴자 공동사무실 등) ▲다함께 돌봄 플랫폼 구축 ▲완주교육 거버넌스 구축 ▲완주 거주 중·고등학생 신입생 무상교육 지원 ▲지역재생형 농촌유학센터 건립 등이 있다.

또한 안전한 완주를 위해 ▲완주소방서 건립 ▲안전한 먹거리 무상급식 확대 ▲어린이 교통안전시설 및 프로그램 강화 ▲완주군민 4대 안전보험 지속확대 ▲주민참여형 에너지 자립기반 구축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 등이 공약으로 확정됐다. 청년세대를 위해서는 ▲청년내일지원센터 운영 ▲완주청년 점프업 프로젝트 ▲청년주도형 사회적 농업 육성이 담겼고, 지방자치 선도와 자치분권을 위한 ▲지역균형발전정책 추진 ▲행정복지센터 건립(운주 등) ▲완주형 주민참여 확대(주민참여예산제 2.0, 주민배심원제) 등이 최종 확정됐다.

향후 완주군은 공약사업을 군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중앙부처의 재정지원, 예산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완주=이종복 기자



완주군은 주민과 전문가로 구성된 '민선7기 완주군 공약이행평가위원회'를 열었다.

## 제22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김제시의회의(의장 운주현)는 20일 제4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등 상정 안건을 의결하고 지난달 21일부터 30일간 이어진 제224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 하였다.

이번 정례회의 중요 의사일정인 예산안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12월 10일부터 1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에서 본심사가 진행되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집행부에서 편성·제출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투자심사와 정수승인 등 행정절차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였으며, 특히 일회성 및 선심성 사업 등 비효율적인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하고 시민들의 복지향상과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예산 편성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하였다.

의결된 2019년도 예산은 총 7,827억

원 규모로 내역별로는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7,351억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159억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317억원이다. 또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7,686억원으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 7,052억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은 319억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은 315억원 규모로 의결되었다.

또한, 지난 11월 22일부터 30일까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위원장 이정자)가 김제시 분청과 직속기관 등 총 50개 부서를 대상으로 진행되어 올해 추진된 주요사업 및 시정전반에 대해 총 298건의 시정 및 요구사항을 집행부에 통보하고 지방자치법 등의 규정에 따라 처리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다.

한편 이번 제4차 본회의에서는 김제시의회 전체의원이 공동 발의한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건설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촉구 건의문』이 채택되었다. /김제=곽노태 기자

## 완주군, 하반기 일자리 창출정책

### 공모전서 총 13개 아이디어 선정

완주군이 주민참여 일자리 창출공모전을 통해 총 13개의 아이디어를 선정했다.

완주군은 가족문화교육원에서 지난 19일 주민참여 일자리 창출공모전 발표심사를 진행하고, 지난 11월부터 이어온 '주민참여 일자리 창출정책 공모전'을 마무리 지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1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주민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하반기 공모전에는 총 43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외부 심사위원단이 서류심사를 통해 선정된 13건을 대상으로 이날 2차 발표심사를 진행해 순위를 가렸다.

커피 찌꺼기를 활용한 재생사업과 신 중년(50~60세대)을 겨냥한 생활 기술 서비스 사업(신 중년 핸디맨 사업)이 각각 주민과 직원 대상을 수상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 국가예산 확보 대응전략 모색

## 김제시, 2020년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 개최

내년도 국가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7천억원대를 확보한 김제시가 오는 2020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제시는 지난 20일 박준배 시장이 직접 주재하는 2020년 국가예산확보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3차)를 개최하고 정부 국정과제, 중점투자방향 및 생활밀착형 SOC사업 등과 연계하여 발굴한 51개의 신규사업(총사업비 3,476억원)에 대한 추진상황과 향후 국가예산 확보방안 등을 중점 논의했다.

김제시는 이번에 발굴한 신규사업에 대해 전문가 자문과 부처별 내년도 정책방향을 토대로 논의를 보강해 나갈 것과 동시에 국가예산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별 사전절차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전북도 소관부서와의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여 도 핵심사업 포함을 추진하고, 국가예산 확보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처별 예산편성시 관련 예산을 반영시키기 위해 5월까지 중앙부처에 대한 방문 활동을 통한 사업 타당성 설명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박준배 시장은 "사업별 정부정책에 부합한 논리를 보강하고 국가예산 편성 단계별 효과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하여, 시정 현안사업에 대한 2020년 국가예산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지난 19일 김제실내체육관에서 김제시 읍면동 농악발표회가 열렸다.

## 김제시, 읍면동 농악발표회 성황리

### 금산면 모악예술단 최우수상 수상

지난 19일 김제실내체육관에서 김제시 읍면동 농악발표회가 열려 각 읍면동을 대표하는 농악단과 시민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지역의 특색 있는 농악 가락을 한자리에서 만끽할 수 있는 흥겨운 자리가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는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문화 유산인 김제농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단결을 위해 마련한 행사로 읍면동 농악단 11팀과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김제농악(설장구)의 흥겨운 축하공연과 함께 각 읍면동 농악단들의 다양한 예술성과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열띤 공연로 이어졌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금산면 모악예술단이 최우수상을 봉남면 봉남소리울림이 우수상을 수상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모악예술단 농악단 박미성 단장은 "우리 단원들이 한 마음이 되어 땀 흘린 노력의 결실이며 앞으로도 우리 전통농악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김제농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박준배 시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서 우리지역의 민속에 대한 전통문화를 더욱 더 발전시키고, 우리의 전통 문화예술을 보존하고 계승 발전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